

# 지방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탐색:

##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개인내적 변인을 중심으로

김 경 화(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민 하 영(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대학상급생의 경우 대학졸업후의 진로 결정은 주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며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역할 확립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는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긴 유예기를 지속하기도 한다. 취업에 있어서 경제 및 고용 환경도 중요하지만 대학생 본인과 관련된 변인도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지방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탐색하고자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개인내적 변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취업대처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대학생의 진로 지도와 결정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4학년의 남녀 대학생 436명(남학생 212명, 여학생 224명)이다. 조사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은 취업대처행동(적극적, 정보추구적, 회피적 대처행동 12문항), 일에 대한 애착(5문항), 취업하향의지(4문항), 성역할 정체감(남성성 7문항, 여성성 7문항)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해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 전공, 가정의 경제적 상황지각에 따라 취업대처행동이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표1) 성별 및 가정의 경제적 상황 지각에 따라 취업대처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공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대처행동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보추구적 대처행동( $t_{434}=3.17, p<.01$ )과 회피적 대처행동( $t_{434}=-2.90, p<.01$ )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정보추구적 대처행동이 더 높았으며 회피적 대처행동은 더 낮았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나쁘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적극적 대처행동( $F_{2,425}=3.77, p<.05$ )과 정보추구적 대처행동( $F_{2,425}=3.14, p<.05$ )이 높았으며 회피적 대처행동( $F_{2,421}=8.63, p<.001$ )은 낮았다.

둘째, 개인내적 변인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에 대한 애착 수준에 따라 취업대처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에 대한 애착이 높은 집단일수록 적극적 대처행동( $F_{2,431}=7.98, p<.001$ )이 높았고 정보추구적 대처행동( $F_{2,429}=12.36, p<.001$ )이 높았으며 회피적 대처행동( $F_{2,427}=8.92, p<.001$ )은 낮았다. 취업하향의지에 따라 취업대처행동은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취업하향의지가 높은 집단은 취업하향의지가 낮은 집단에 비해 정보추구적 대처행동( $F_{2,429}=4.65, p<.01$ )이 더 높았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적극적( $F_{2,424}=4.55, p<.01$ ), 정보추구적( $F_{2,422}=12.78, p<.001$ ), 회피적( $F_{2,430}=3.23, p<.05$ ) 취업대처행동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은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 상태의 대학생에 비해 적극적 대

처행동이 높았고 양성적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은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된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보다 정보추구적 대처행동이 높았다. 또한 양성적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은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이나 미분화 상태의 대학생에 비해 회피적 대처행동은 더 낮았다.